

Connect to Suncheon



순천, 가봤지만 이걸 몰랐을걸?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순천의 가려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순천에 이런 문화공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순천문화재단은 무엇을 했을까.

시민을 대표하여 사업 체험 후기를 생생하게 보여드립니다.

Connect to Suncheon

2020년 순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서포터즈 SC CREATOR 1기 활동 중 베스트 콘텐츠를 모아놓은 결과 자료집입니다.

웹 형태의 모든 콘텐츠는 순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의 언어를 담다보니 표기와 맞춤법이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순천문화재단 & 서포터즈 사업 소개	3
SC크리에이터 1기&활동 소개	4
(1) 순천 이곳저곳	5
순천만국가정원	6
<small>이현영 / 정성태 / 황영옥 / 박애숙 / 반선순</small>	
순천 드라마촬영장 / 문화의거리	10
<small>김도현, 박종현, 이정석, 이정선 / 김기은, 주은총</small>	
순천만습지 / 용산전망대	11
<small>김기은, 주은총 / 최하영</small>	
순천 명승 제 25호 초연정 원림	13
<small>이성남</small>	
순천 명승 제 41호 순천만 와온해변	15
<small>이성남</small>	
순천 명승 제 65호 송광사	16
<small>안정환, 한광혁, 홍유승 / 김지은</small>	
순천왜성	19
<small>김기은, 주은총</small>	
낙안읍성의 삽살개 이야기	20
<small>박종영</small>	
순천 철도문화마을	21
<small>이정석, 이정선 / 박정은</small>	
문성마을 / 옥리단길	22
<small>반선순 / 박지민, 변혜민, 송예령, 최소망</small>	
죽도봉공원	23
<small>최하영 / 김지은</small>	
업동 호수 공원	24
<small>손옥희</small>	
(2) 순천 문화공간	25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26
<small>박지민, 변혜민, 송예령, 최소망</small>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중년함께 배움학교	27
<small>반선순</small>	
한국가곡기념관	28
<small>김분식</small>	
연경 인문문화예술연구소	29
<small>이복덕</small>	
골목책방 서성이다	30
<small>이복덕</small>	
공유공간 너머	31
<small>반선순</small>	
(3) 순천문화재단 사업	3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등록 대행 서비스	34
<small>이정석, 이정선 / 박지민, 변혜민</small>	
만날강좌 - 생활수목화	35
<small>최희우</small>	
아트팩토리 예술공작소 - 자이언트 페이퍼 플라워	36
<small>박종영</small>	
순천형 예술로 사업	37
<small>김양남</small>	
아고라 순천	38
<small>정성태 / 남유행</small>	
전국생활문화축제	40
<small>최희우 / 김지은, 박정은, 조요순 / 문동훈, 오영옥 / 김민경 / 이성남</small>	
순천문화재단, 출범 1년의 발자취	46
<small>강란규</small>	
SC 크리에이터 1기 활동소감	47

순천문화재단은

2019년 순천 고유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시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순천시 문화예술 정책개발,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 교류, 문화시설 위탁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순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서포터즈 사업

시민들의 문화 활동 참여 기회 제공과 활동 지원을 통해 다양한 문화정책 및 콘텐츠를 발굴하고

순천시와 순천문화재단의 자발적 홍보에 기여하기 위해 “SC 크리에이터”가 탄생하였습니다.

서포터즈의 주된 활동은 단순 홍보에서 벗어나서 문화탐방,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주체적으로 콘텐츠를 발굴하고 직접 제작하는 창작자를 지향합니다.

더 나아가 지역 문화 활동가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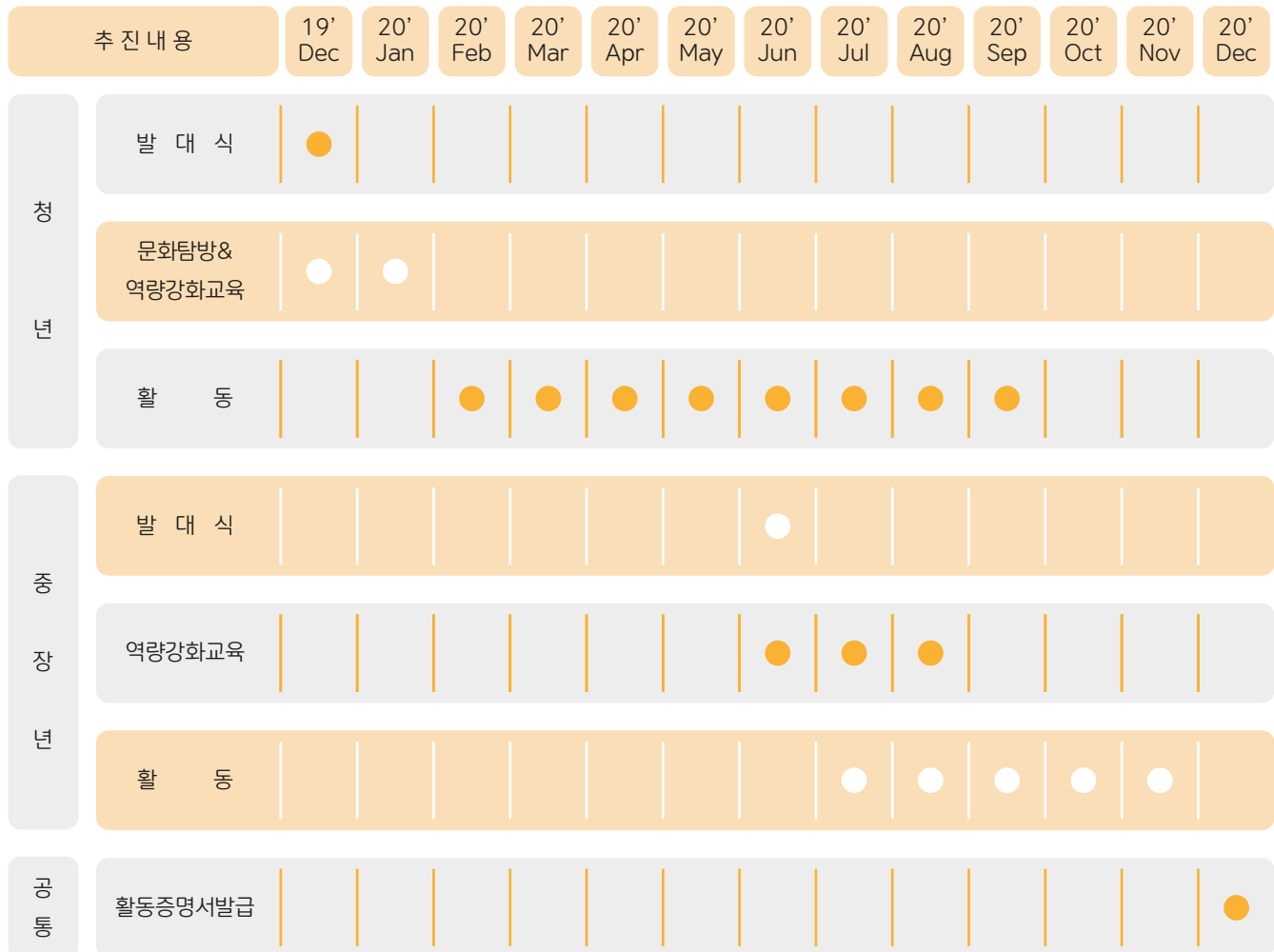
활동명 : SC 크리에이터 1기

활동시기 : 2020년 1월 ~ 11월

대상 : 순천시민 청년층과 장년층

내용 : 교육 이수 후 월 1건 이상 콘텐츠 제작 및 활동보고서 제출

추진일정



C o n n e c t t o s u n c h e o n



청년 SC 크리에이터 1기

고등학생 11명, 대학생 3명 총 14명 위촉

활동기간 : 2019년 12월 ~ 2020년 9월

활동내용 : 순천시 문화탐방, 역량 강화 교육(글쓰기, 영상 제작, 저작권), 콘텐츠 발굴·제작



중장년 SC 크리에이터 1기

40대 4명, 50대 11명, 60대 9명 총 24명 위촉

활동기간 : 2020년 6월 ~ 2020년 11월

활동내용 : 역량 강화 교육(블로그, 스마트폰 영상 제작, 저작권), 콘텐츠 발굴·제작



순천 이곳저곳

순천만국가정원 빠르게 입장하자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입구입니다 입장권 파는 곳을 지나면 매표소가 보이네요
그대로 직진하면 왼편에 동문 대형버스 주차장이 보입니다
또 길을 따라 직진하면 순천만 국가 정원의 승용차 주차장이 있는데요
모두 태양광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주차를 하고 동문 매표소로 걸어오다 보면
순천만 국가 정원 1호 종합안내판이 보입니다
처음 방문한 관광객분들은 참고하시면 더 수월하게 입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문을 빠져나와 좌회전을 하면 이렇게 시원한 서문을 향한 대로가 보입니다.
500m 정도 직진하면 서문 입구가 보입니다. (중간에 안내판 있어요!)
좌회전하여 서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좌측과 우측에 승용차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대형차 주차장이 있네요. 참고하세요.
서문 매표소 위치는 건물과 잔디밭 사이로 들어가면 있어요

★참고로 동문 주차장이 더 넓습니다. 대형 주차장도 더 넓고요.
첫 방문하신다면 동문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C 크리에이터 1기 정성태



순천만국가정원 봄날의 기록

순천 여행은 친지, 지인들을 모시고
순천만국가정원을 안내하였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의 꽃들의 향연~~~~~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축제나 행사가 모두
취소되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아쉬운 마음을 꽃으로나마 달려봅니다.

SC 크리에이터 1기 황영옥

순천만국가정원 한국정원의 멋!



연회란 밝은 빛을 맞이 한다는 뜻으로 햇빛을 제일 먼저 맞이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회문 앞뒤 상단 양쪽에는 장수를 의미하는 학이 불로초를 물고 들어오는 모습이 있고 안쪽 상단 중앙에는 연회문이 붙어야 할 곳에 악귀를 물리 치는 귀면이 있습니다. 귀면은 귀신의 얼굴이라고도 하고 영의 머리라고도 합니다.

(한국정원 입구에 있는) 자경전 꽃담은 가장 아름다운 궁궐 담장의 하나로 유명합니다. 삼화도와 벽돌이 가로와 세로 혹은 대각선으로 만나게 하여 갖은 기하학 무늬를 내고 그 사이마다 같은 기법을 응용해서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문양들과 갖가지 길상 문자를 넣었는데 삼화도의 선이 아니라 그 선 안에 있는 벽돌의 면이 무늬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연회문을 들어서면 어느 나라의 정원보다 단아하고 절제된 아름다움과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와 우리 선조들의 정취를 마음껏 느껴 볼 수 있는 궁궐의 정원, 군자의 정원, 서민의 정원이라 할수 있는 소망의 정원이 있는데 이제 궁궐의 정원부터 함께 구경해 보시게요 ㅎ~

경복궁 후원의 아미산과 굴뚝, 길상 문양의 꽃담 그리고 왕들의 무병장수를 위해 만들어졌던 창덕궁 연경당의 불로문 등이 있어서 궁궐정원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네요.

부용정은 주합루 남쪽 연못가에 있었고 연못 안에 채색하고 비단 돛을 단 배가 있어 정조 임금께서 꽃을 감상하고 고기를 낚던 곳이기도 했던가 봅니다. 왕이 과거에 급제한 이들에게 주연을 베풀고 축하해 주기도 했으며 신화들과 어울려 꽃을 즐기고 시를 읊기도 하였다고 하네요.

동그란 보름달 형태의 문으로 전돌로 만월형의 출입구를 내고 좌우로 밀어서 열게 된 년출문이 달려있습니다. 궁궐의 협문으로는 유일하게 원형으로 만든 아름다운 문인데 옛사람들은 달 속에 신선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만월문에서 바라본 어수문과 부용화가 순천시가지와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주네요ㅎ~

군자의 정원 중심 건물인 경정의 현판 내용은 방정영의 생활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경이라는 한 글자가 성학의 처음이자 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경은 마음을 한곳에 집중시키고 외물에 끌리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되면 아버이를 성김에 있어서 순종하는 효가 되고 임금을 성김에 있어 불이의 절의가 되며 학문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경정이라는 정자 이름이 바로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군자의 정원을 지나면 소망의 정원이 나오는데 옛 서민들의 민간신앙을 모티브로 조성되었고 자연은 우리 조상들의 간절한 기도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정화수를 떠 놓고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두 손 모아 빌던 우리의 옛 정서를 반영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들꽃이 피어난 소망의 정원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마음의 정원이기도 하지요.

SC 크리에이터1 1기 반선순





7월의 비오톱 습지 해바라기 향연

국가정원 동문을 통해 이태리 정원을 지나면 메타스퀘아 길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곳은 야생의 생물들이 생태환경에서 잘 서식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공물이나 자연물을 말하는 곳, 바로 비오톱 습지입니다.

7월 초 비오톱 습지는 세상과 소통하고 기다리며 당신을 바라보는 해바라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해바라기 꽃은 항상 해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피며, 해가 도는 방향에 따라 돌린다고 하여 해바라기라 불리게 되었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과분한 감사로 마무리하는 비오톱 습지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생물들이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영원히 간직되기를 고대해봅니다.

SC 크리에이터 1기 박애숙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정원을 품은 생태도시 순천은 도시가 아니고 정원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순천만 습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구의 정원 순천만>을 주제로 순천만 보전을 위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2023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는 시민과 함께 하는 일상 속에 정원이 있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순천시 전 지역을 정원화하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과 도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람과 생태와 자연이 함께 어울려 조화를 이루며 살기좋은 행복한 삶을 기대해봅니다.

<한국정원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습지센터와 순천시가지>
시야가 확~ 트이고 기분이 상쾌하다.

<한국정원 초지원에 만들어진 흑두루미 상징물>
한국정원 초지원에 있는 순천 시조이며 순천만을 상징하는 흑두루미 토끼어리가 인상적이다. 장수의 상징이며 부부가 좋은 흑두루미는 해마다 순천만에서 월동을 하고 천연기념물제 228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SC 크리에이터 1기 이현영

한국정원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습지센터와 순천시가지



한국정원 초지원에 만들어진 흑두루미 상징물

순천문학탐방 리뷰

순천드라마촬영장은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드라마와 영화들을 촬영하는 장소인데요!

크게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근대 시대별로 서울 달동네 세트장과 서울 번두리 세트장, 순천읍 세트장으로 나누어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들에 제빵왕 김탁구, 늑대소년, 허삼관, 이몽, 눈이 부시게 등이 있습니다!

모두 순천드라마촬영장을 배경으로 찍은 씬들이 있다고 하니 한번 어떤 장소인지 구경하시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순천드라마촬영장의 또 다른 포인트!!

바로 교복 체험장이 있어 저렴한 가격에 교복을 입고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하며 사진을 찍고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저희도 교복 체험을 해보았는데 교복이 생각보다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다른 소품들도 소액을 지불하고 대여가 가능하였습니다.

과거로의 여행을 더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듯 합니다.

문화의 거리는 순천을 여행은 분들에게도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 곳인데요. 순천의 중심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입구에는 은행나무가 양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고 거리에는 맛집과 독특한 카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방들도 많구요!!

저희들은 문화의 거리 해설사분께 설명을 들으며 구경을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문화공간들이 있어 평소에 이용할 수도 있고 친구와 가족들과 놀러 올 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옥으로 만들어진 복합 문화공간이 있는데 누구나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도 있었고 창작 장안마당과 장안여인숙등 시민들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장소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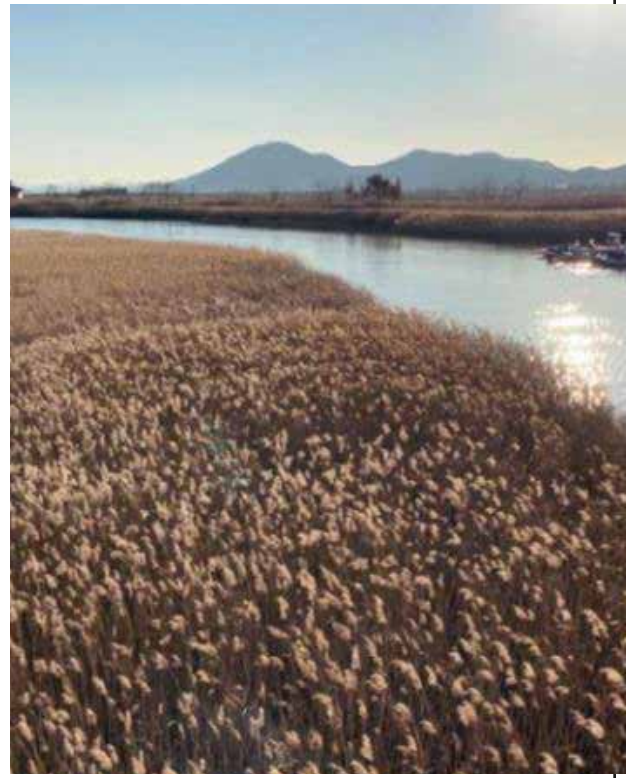
또 문화의 거리를 통해서 순천의 역사와 상징들을 담아놓은 모습들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SC 크리에이터 1기 김기은, 주은총

드라마세트장에서는 옛시절 교복을 체험 할 수 있고 옛 길거리, 건물 등 직접 볼 수 있습니다.

SC 크리에이터 1기 김도현, 박종현, 이정석, 이정선





순천문화탐방 리뷰

순천만은 여수반도와 고흥반도 사이에 위치하고 옥천, 이사천, 동천이 바다와 합류하는 습지입니다.

갯벌과 갈대의 조화로 안정된 생태계를 뽐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국제보호종인 흑두루미가 전 세계 개체의 20퍼센트 이상이 서식하는 곳이라는데요!
자부심 뽐뽐이네요!!

습지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선 생태체험선을 타는걸 추천드려요!! 탐방을 기회로 처음 타보게 되었는데 타는 이유가 있습니다 ㅠㅜ
갈대 밭에서 보는 것 외에 정말 많은 천둥오리, 백조, 흑두루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배에서 망원경도 빌려주셔서 움직임까지 가까이서 보는듯하게 관찰하고 하고 왔다는 사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순천만 습지 홈페이지 : <https://scbay.suncheon.go.kr/wetland/>

SC 크리에이터 1기 김기은, 주은총

순천만습지 그리고 용산전망대

가을빛 갈색으로 물든 또 다른 곳 순천만습지는 순천만국가정원에 비해 화려함보다는 갈대 숲길을 조용히 걸으면서 가을을 몸으로 느끼며 생각할 수 있는 정적인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순천만습지 갈대숲을 걸으면서 가을바람에 일렁이는 하얀 갈대밭을 만나보고 난 뒤 용산전망대에 올라 순천만 S자 수로의 아름다운 일몰의 모습을 만나봅니다.

겨울철에는 순천만 바다까지 유람선을 타고 돌아볼 때 수로 양쪽에서 청둥오리, 각종 철새, 흑두루미까지 철새 군락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용산전망대로 바삐 걸습니다.
순천만 수로가 보이는 방향으로 조금 가파른 길을 올라가면
첫 번째로 만나본 순천만 S자 수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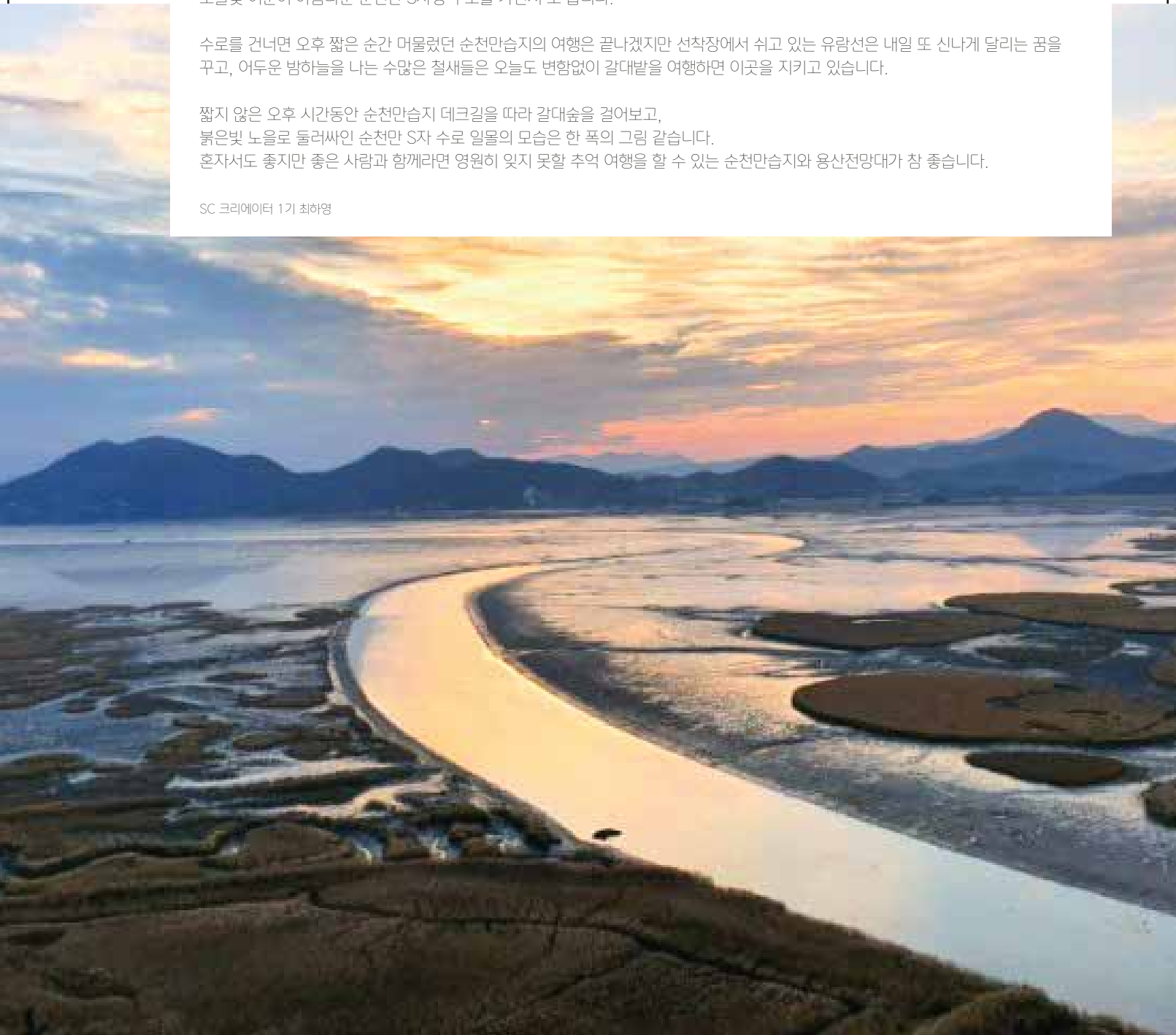
용산전망대에 도착하여 순천만과 산 위에 머물고 있는 듯한 아름다운 붉은 노을 가득한 일몰 모습을 한창을 봅니다.

오랫동안 아름답고 환상적인 순천만 일몰 모습을 잘 보고 내려가는 길에 이른 동백꽃이 활짝 핀 모습도 보고 해가 산 아래로 넘어간 후 붉은 노을빛 여운이 아름다운 순천만 S자형 수로를 가면서 또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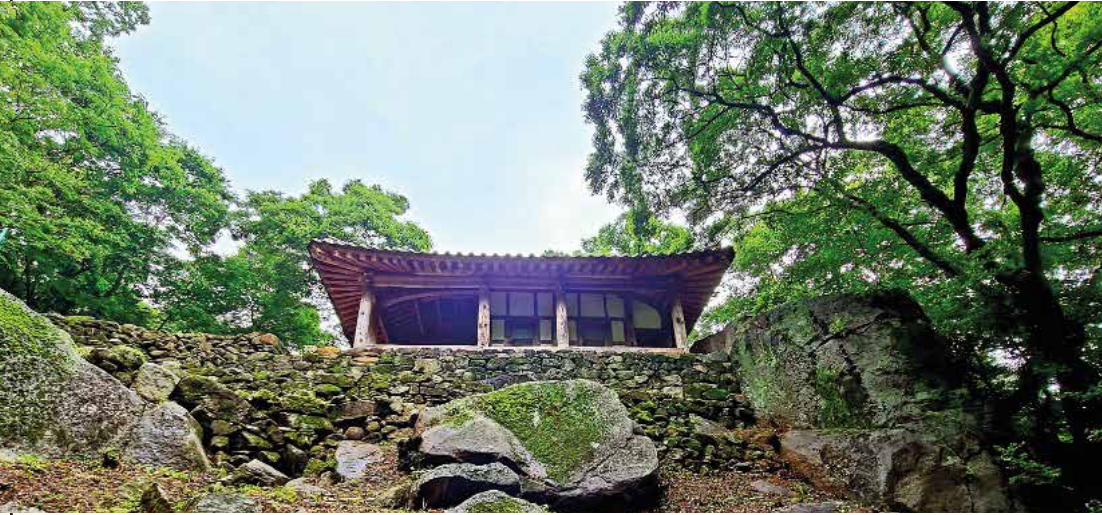
수로를 건너면 오후 짧은 순간 머물렀던 순천만습지의 여행은 끝나겠지만 선착장에서 쉬고 있는 유람선은 내일 또 신나게 달리는 꿈을 꾸고, 어두운 밤하늘을 나는 수많은 철새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갈대밭을 여행하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오후 시간동안 순천만습지 데크길을 따라 갈대숲을 걸어보고,
붉은빛 노을로 둘러싸인 순천만 S자 수로 일몰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혼자서도 좋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 여행을 할 수 있는 순천만습지와 용산전망대가 참 좋습니다.

SC 크리에이터 1기 최하영



순천 명승 제 25호 초연정 원림



대한민국의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 민속문화재, 국가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명승, 사적, 보물, 국보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명승은 지방 지정문화재에 속하는 국가 지정문화재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유적과 더불어 주위환경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전남에는 21곳의 명승이 지정되어 있으며 순천에는 초연정 원림(명승 제 25호), 순천만(명승 제41호), 조계산-송광사-선암사 일원(명승 제 65호) 3곳이 있다.

이번에는 순천 초연정 원림을 가보기로 했다.

1990년 2월 24일 전라남도 기념물 제 127호로 지정되었다가 2007년 12월 7일 명승 제 25호로 승격되었다.

초연정은 원래 정도 12년 경 대광사 승려가 정자를 창건하여 수석정이라고 이름 짓고 수도하였던 곳이다. 그 후 순조 9년에 청류현 조진충이 중창하여 순창조씨의 제각으로 사용하였으며, 그의 아들 조재호가 중건하고 고종 25년에 송병선이 초연정이라고 개칭하였다.

왕대마을 안쪽 길을 지나 모후산을 오르다 보면 깊은 계곡 옆 기슭에 초연정이 있다. 이곳이 고려 공민왕과 관련하여 깊은 왕대마을이라는 점에서 공민왕이 초연정에 머물렀다고 전하나 정확한 근거는 없다. 왕대마을은 공민왕 10년에 공민왕 일행이 흉년적의 잔을 피하기 위해 이곳 모후산에 머물렀다 하여 유경이라 부르다가 마을에서 300여m 떨어진 곳으로 피신하였다 하여 왕대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초연정은 공민왕이 이곳으로 파천하였을 당시 왕을 호위하였던 5명의 장수가 바위에 깃대를 꽂았던 흔적이 있다고 하여 깃대바위라고도 부른다. 높은 암반 위에 축대를 1단 쌓고 건물을 건축했으며, 바로 아래에는 연못의 유구가 있고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순천 초연정 원림을 그대로 옮겼음을 밝혀둔다.)

초연정 마루에 걸터 앉아 바라본 모후산 모습이다.

참 평화로운 모습이다.

귀를 간지럽히는 새소리와 계곡의 물소리가 일상의 피로감을 풀어 준다.

종종 휴식이 필요할 때 오면 참 좋은 곳이다.

SC 크리에이터 1기 이상남



순천 명승 제 41호 순천만 와온해변



‘순천 가볼만한곳’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순천만이다.
순천만이 없는 순천은 상상할 수 없다.
람사르습지에 등록되어 있기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순천만을 찾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순천만이 대한민국 명승 41호라는 것을...,
2008년 6월 16일 지정되어 꽤 오랜 시간 명승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순천사람들은 와온해변을 순천만이라고 할까, 화포마을을 순천만이라고 할까 많이 궁금했다.
순천여행 하는 사람들은 순천만의 어떤 모습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일까?
대한민국 명승을 찾아다니는 두 번째 여행 이번에는 순천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고 한다.

순천만은 고흥반도와 여수반도로 둘러싸여 있는 남해의 만을 의미한다. 여자만이라고도 한다.
순천이 낙안군이었을 때부터 명칭이기 때문에 현재도 여자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순천만은 동천의 하구 지역만을 가리킨다.
남해안 지역에 발달한 연안 습지 중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경관을 가지고 있다.
갯벌에 펼쳐지는 갈대밭과 칠면초 군락, S자형 수로 등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해안 생태경관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대한민국 명승 41호 지정된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와온해변, 순천만 연안습지, 화포마을까지 이어지지는 아름다운 모습은 대한민국 명승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 명승 41호를 순천만 연안습지 한 부분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남기는 것이다.
꼭 알았으면 하는 많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빠질수 있기 때문이다.

(와온해변은)여수 가는 방향의 17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면 된다.
좁은 길이지만 안내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다. 길을 잃을 염려는 없다는 뜻이다.
가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어야 하지만 역시 녹색 색깔의 안내판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다.

와온해변은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영무산 서면 끝자락이 내려 낮은 곳에 있는 드넓은 갯벌이다.
하루 중 해넘이가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져있어 사진 작가들이 몰려온다.

동쪽으로는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가장리, 남서쪽으로는 고흥반도와 순천만에 인접한 해변으로,
순천만의 동쪽 끄트머리 와온마을 앞다바 3km길이다. 해변 앞에는 솔섬이라 불리는 작은 무인도가 있다.
이 섬은 학이 납작하게 엷드린 모양이라 하여 학섬이라고도 하고, 밥상을 엷어 놓은 것 같다 하여 상섬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섬 안 주막이 있어 뽕배를 타고 조업을 나갔던 어부들이 목을 축이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흔적이 없어 보인다.

와온마을은 뒷산이 소가 누워 있는 형상이라하여 누울 와臥, 따뜻할 온溫 와온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주변에 소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한국 최초로 새고막 종패 채묘가 개발되어 지금도 잘 생산되고 있다.
지난번 와온마을을 찾았을 때 보았던 새고막을 분류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대한민국 명승을 찾아다니는 색다른 즐거움이 있다.
순천의 명승을 찾아다니면서 순천에 살고있는 자부심이 저절로 쌓여 간다.

SC 크리에이터 1기 이성남



순천 명승 제 65호 송광사 문화유산

순천 송광사 목조삼존불감

종목 : 국보 제 42호
지정일 : 1962년 12월 20일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송광사성보박물관
시대 : 통일신라시대

목조삼존불감은 불상을 모시기 위해 나무나 돌, 쇠 등을 깎아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작은 규모로 만든 것을 불감이라고 합니다. 불감은 그 안에 모신 불상의 양식뿐만 아니라 당시의 건축 양식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불감은 모두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운데의 방을 중심으로 양쪽에 작은 방이 문짝처럼 달려있습니다. 가운데 큰 방에는 연꽃무늬가 새겨진 대좌 위에 앉아 있는 본존불이 조각되어 있고 양쪽의 작은 방에는 각각 보살상이 모여져 있습니다. 이 목조삼존불감은 매우 작으면서도 세부묘사가 정확하고 정교하여 우수한 조각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불감류 중 매우 희귀한 예로 할 수 있습니다.



해심고신제서

종목 : 국보 제 43호
지정일 : 1962년 12월 20일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송광사성보박물관
시대 : 고려시대

이 문서는 고려 고종 3년(1216)에 조계산 제 2세 진각국사 해감에게 대선사의 호를 하사한 제서입니다. 이것은 능형화문을 나타낸 홍색, 황색, 백색 등의 무늬가 있는 비단 7장을 이어서 만든 두루마리에 묵서한 것으로 크기는 가로 3.6m, 세로 33cm입니다.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서 글자도 자세히 보이지 않아 문장전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것은 고려시대 승려에게 하사한 제서 중 몇 점 되지 않아서 귀중합니다.



순천 송광사 국사전

종목 : 국보 제 56호
지정일 : 1962년 12월 20일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송광사
시대 : 조선시대

조계산에 있는 송광사는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로 매우 유서 깊은 절입니다. '송광'이라는 절의 이름은 조계산의 옛 이름인 송광산에서 따 왔다고 하는데 절을 언제 세웠는지 정확한 자료는 없고 신라 말기에 체징이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송광사 국사전은 나라를 빛낸 큰 스님 16분의 영정을 모시고 그 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건물로 옛 날에는 참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고려 공민왕 18년(1369)에 처음 지었고 그 뒤 두 차례에 걸쳐 보수하였습니다. 건축 구조상 조선 초기 양식을 지니고 있는 이 건물은 송광사 하사당(보물 제 263호)과 같은시대에 지은 것으로 짐작되며, 소박하고 아담한 형태와 그기법에서도 주심포 중기 형식의 표준이라고 할 만한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송광사 산책길

송광사는 16명의 국사를 배출한 유서 깊은 승보사찰로 유명한 곳입니다.

걷다보니 무소유길이 나오더라고요.

법정스님이 자주 걸던 길이라 하네요.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곱게 뻗어 주변이 너무 아름답고 공기가 맑아 절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사찰은 각 사찰만의 분위기가 있는거 같아요.

송광사는 아기자기하고 고즈넉한 감성이 어울리는 절이구요.

개인적으로 오래된 사찰의 단청의 우아함을 좋아합니다.

가만이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정리되고 차분해집니다.

구석구석 걷다보니 제 마음도 평온이 깃드네요.

SC 크리에이터 1기 김지은

—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법정스님 '무소유' 中
—

순천왜성

위치 :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산1번지에 위치
종목 : 기념물 제 172호(1999년 2월 26일 지정)
시대 : 조선시대
크기 : 면적 188,248㎡
-외성 길이 2,502m, 높이 5m
-내성 길이 1,342m, 높이 4m

순천왜성은 전라도 지방에 유일하게 남은 왜성으로 1597년 후반부 3개월 동안 쌓아 올려진 성입니다.

왜성이 만들어진 배경은 1597년 9월 왜군이 경기도 부근 전쟁에서 패한 뒤 전라도와 경상도 남해안 지역으로 남하하였었는데 이때 각 지역의 요충지를 찾아 새로운 성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순천왜성 또한 호남지방을 공략하기 위해 전진기지 겸 최후 방어기지로 삼기 위해 쌓았던 것이지요

순천왜성은 1997년 1월 국가 사적 제 49호에서 해체되기 전까지는 '승주 신성리성'으로 불려왔습니다.
성벽은 외성 3첩과 내성 첩으로 쌓았는데 지금은 내성과 성 주위의 연못을 둘러 판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1598년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과 소서행장이 이끄는 왜군 사이에 최대의 결전이 이루어졌었고 이순신 장군이 소서행장을 노랑 앞 바다로 유인해 대승을 거둔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순천왜성에서 1598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걸쳐 일어난 싸움이 왜교성 전투입니다.
조, 명 연합군과 왜의 장수인 고니시 유키나가 사이에 벌어진 최대의 격전지였고 임진왜란 7년 전쟁의 마지막 전투이기도 하였다고 하네요.
당시 전쟁의 모습은 '정왜기공도권'에 그려져 있으며 왜성에도 그 그림을 세워놓았습니다.

문화재 지정

-사적 제 49호 「승주 신성리성」(1963,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왜성(1996,도지정문화재 지정권고)
-전라남도기념물 제17

-문지1

문지는 본성과 외성을 연결하는 주출입문입니다.
문지 옆으로는 해자를 두어 섬처럼 만들어 방어에 치중하였던 건물지로 여겨지고 만조 때 멀리서 이곳 출입로가 다리처럼 보인다하여 왜교, 예교라고 합니다.

-천수기단

천수 건물이 세워졌던 단으로 천수기단 앞에는 부속된 낮은 단이 있습니다. 천수는 성을 대표하는 권위와 상징의 건물입니다

SC 크리에이터 1기 김기은, 주은총



낙안읍성의 삼살개 이야기

낙안읍성은 초가지붕과 사립문, 정겨운 돌담과 고샅 등 옛 마을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민속마을입니다. 인위적으로 꾸민 마을이 아니고 원래 있던 집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여느 민속마을과 다릅니다.

낙안읍성은 300여 동의 초가가 웅기종기 모여 있고, 그 안에 100세대, 2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을은 잘 보존된 전통가옥을 포함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낙안읍성의 정문으로 이용되는 동문, 낙풍루입니다.

낙풍루 입구에 석상 3개가 보입니다.

삼살개의 형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를 수호신으로 하는 곳은 흔하지 않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절이나 신사 입구에 돌로 만든 개를 세우고 고마이누(고려개)라고 부르는데 이는 고려가 일본에 불법을 전하면서 같이 보급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석구가 있는 곳은 서울 호암산 입구와 낙안읍성 두 곳 뿐입니다.

낙안읍성 정문적인 동문 앞에 석구를 세운 이유는 두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멸악산이 험준하고 산세가 강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3개의 석구를 두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읍성 좌측에 봉우리가 다섯인 오봉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많이 죽어 그 귀신들이 읍성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수호한다는 의미로 세웠다고 합니다.

석구는 삼살개로 세웠는데 한자풀이로는 삼은 없앤다, 쫓는다, 살은 귀신, 액운, 즉 귀신을 쫓는 개로 옛날 선조들은 믿었습니다.

호랑이와 해태와 같은 큰 동물이 아니라서 친근감도 들고 낙안읍성의 초가지집과도 잘 어울린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삼살개가 멸종위기에 처한 가슴아픈 사연도 있습니다.

신라때부터 길러 온 토종개였는데 일제 강점기 때 삼살개의 긴 털로 군용장갑을 제작하느라

약 50만 마리의 삼살개가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고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CNN선정 대한민국 대표관광지 16위로 선정된 낙안읍성에는 입구에서부터 낙토민안을 영원하는

우리 조상의 풍습과 삼살개에 대한 슬픈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주소 : <https://youtu.be/UWzo5Wg8G1o>

SC 크리에이터 1기 박종영



현재 석구가 있는 곳은 서울 호암산 입구와 낙안읍성 두 곳 뿐입니다.

순천 철도마을

◆ 관사들 사이에 바둑판과 같은 길을 내었고 330제곱미터에서 2000제곱미터까지 차등을 두어 제공되었으며 대부분의 관사는 400제곱미터정도의 면적으로 건축되었다.

◆ 일제강점기 전라선이 놓이면서 철도 관련 종사자들의 관사로서 조성되었으며 해방 이후 계속하여 대한민국 철도청의 관사로 사용하다 민간에 불하되었다. 조곡동 철도관사마을이라고도 불린다.

◆ 일제강점기인 1936년 당시 순천철도사문소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한 주택단지이다. 단순히 주택만 건축한게 아니라 운동장, 병원, 클럽, 목욕탕, 수영장 등의 복지시설이 함께 조성된 신도시였다. 등급별로 들어선 관사와 숙소 등이 남아 있어 우리나라 철도 역사와 종사자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다.

순천철도마을박물관은 1층은 박물관, 2층은 게스트 하우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순천의 철도 역사와 옛날 물품들이 전시되어 더욱더 흥미를 가지고 박물관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기적소리전망대는 조그만 철도처럼 보이게 만들어 기차역을 연상하게 한다. 또 안쪽에는 편의시설 및 기관실처럼 꾸며진 전망대가 있고 그곳에서 경치를 보면 조곡동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이 펼쳐집니다.

SC 크리에이터 1기 이정석, 이정선, 박종현, 김도현



철도문화마을

소소한 볼거리가 있는 조곡동에 위치한 철도문화마을에 구경가실게요!!

기차 콘셉트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곳은 철도문화마을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해놓고 깨끗하게 운영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민들이 다 거주하고 살고 관광객이 들렸다가는 곳이며 주변 어르신들이 너무 친절하게 여행객들을 반겨주시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우리나라 기차의 역사와 유래가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자그만한 기차 도서관도 있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너무 알차게 만들었네요.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도서관은 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맘편하게 사소한 일상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SC 크리에이터 1기 박정은





화포 바닷가

이곳이 일출명소임을 알려주는 소망탑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변에 짱뚱어 동상이 있는 조그만 공원 발견.

예전엔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생겼나 봅니다.

화포는 짱뚱어가 유명해서 어울리는 공원인 것 같네요.

못생겼지만 짱뚱어 탕 끓이면 정말 맛나답니다.

기력 보충 짱

마음이 힐링이 필요하신분 화포해변으로 오세요.

SC 크리에이터 1기 김지은

죽도봉공원

순천 시내에서 접근하기도 아주 쉬워요.

언제 어느 때나 쉽고 편하게 숲길을 걸으며 자연과 함께하면서 보고 느끼며 힐링하기 좋은 죽도봉 공원에 한번 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 참고하세요

- 계단 오르는 것이 힘들면 차로 죽도봉 주차장까지 오시면 됩니다.
- 시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순천 시내 야경도 너무 예뻐요.
- 팔마의 유래는 고려 충렬왕 때(1277년) 승평부사 최석은 치적이 뛰어나 내직(內職)으로 영전하게 되자 고을 사람들이 관례에 따라 말 여덟 마리를 바쳤는데 상경한 뒤 그동안에 낳은 새끼 말 한 마리를 더하여 아홉 마리를 되돌려 보내와 청백한 이도(吏道)의 분을 보여 줌으로써 종래의 한마떼습이 없어지게 되어 이 고을 사람들은 그 가룩한 뜻을 이어받아 팔마정이라 이름하였습니다.

SC 크리에이터 1기 최하영

조선 시대 화살대에 사용되는 대밭이 있었으며 예전에는 산 밑으로 물이 흘러 섬같이 생겼다고 하여 '대나무 죽(竹)'자와 '섬도(島)'자를 사용해 죽도봉이 되었다고 전한다. 순천 시가지의 한변에 볼 수 있는 1980년대 지어진 강남정 전망대는 3층 건물로 1층은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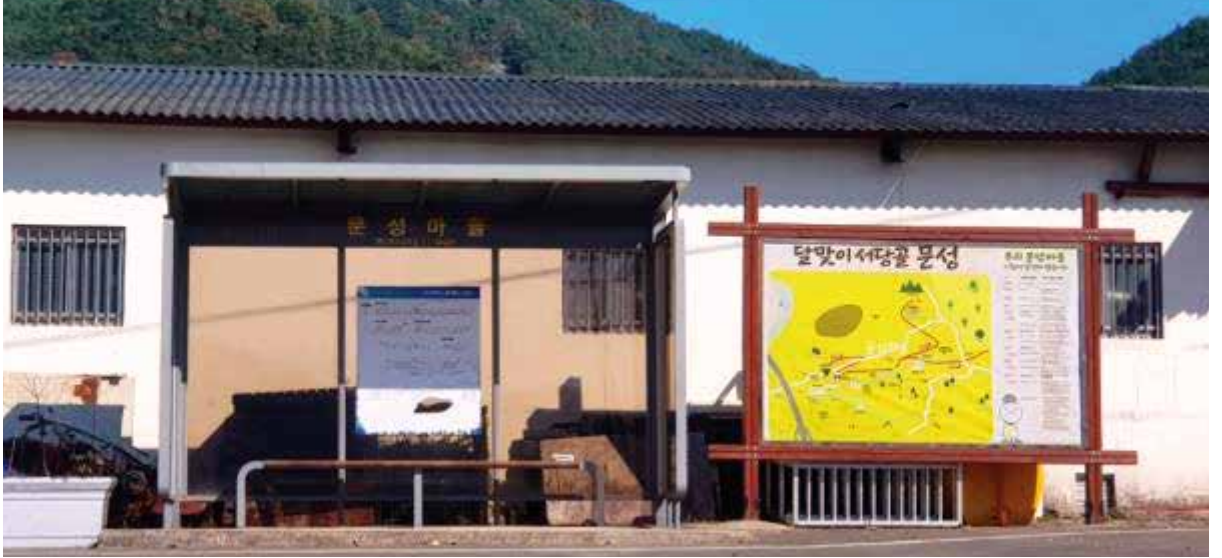
죽도봉 공원의 팔마비입니다. 고려 충렬왕때 청백리였던 부사 최석이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타지역으로 영전할때 백성들이 관례대로 말 8마리를 바쳤으나 다시 돌려보내 백성들이 그의 덕을 칭송하여 이 비를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은 단청이 아름다운 죽도봉 공원의 상징물 연자루입니다. 고려때 지은 2층 누각으로 원래 남문교 옆에 있던것을 1979년에 복원하여 현재 위치에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강남정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호산 강계중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SC 크리에이터 1기 김지은



문성 마을을 찾아서



체험객들이 담아 놓은 옷된장과 옷간장독이랍니다. 미리 된장 만들기체험 신청을 하면 메주만들기를 장 담그는 일까지 본인들이 직접 담을 수 있습니다. 이름표를 달아 놓고 숙성이 되어 된장 만드는 날짜에 맞춰서 오면 된답니다. 우리 집 것도 담았었는데 주민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담은 옷된장이라 그런지 맛이 다릅니다. 정말 맛이 있어서 저는 양념을 따로 하지 않고 생 된장을 그냥 먹는답니다 ㅎㅎ

생활방식의 차별화와 상표등록등 마을 특산물 특허등록 상품들입니다. 이호성 대표의 열정적인 마인드가 있었으니 가능한 일인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을을 정원화하고 2차로 5개년 마을가꾸기 사업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갔을 때는 청소를 해도 쓰레기가 쌓여서 힘들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을 입구에서 부터 예쁜정원으로 꾸며서 쓰레기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 예쁜 카페까지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당번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장에 진열된 많은 표창장들이 문성마을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호성 대표님의 달맞이골 문성마을 사랑은 마을 모두가 주인이 되는 협동 마을로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참 보기 좋았고 대한민국 농촌의 미래가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기쁜 날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더~더 기대하겠습니다!!!^^~

유튜브 주소 : <https://youtu.be/l-sl3yfCR90>

SC 크리에이터 1기 박선순

서울은 가로수길 순천은 옥리단길~!

서울의 그 유명한 가로수길 순천엔 뭐가있다??

옥리단길~~

있을 건 다 있는 아니 더 있는 가로수길에서 순여고생들이 뭐하고 노냐~~??

갠성가득한 옥리단길 브이로그

유튜브 주소 : https://youtu.be/zjSpWPYLU_o

SC 크리에이터 1기 박지민, 변혜민, 송예령, 최소양



업동 호수 공원 : 자연 속에서 문화생활 즐기기

Enjoying cultural life in nature



정원의 도시이자 평생학습도시인 순천은 배움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문화와 예술을 또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도시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잠정 폐쇄된 생활문화센터 영동 1번지 우쿨렐레 동아리 친구 몇명과 용당동에 위치한 업동 호수 공원을 찾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잘 지키면서!!

업동 호수 공원의 장점을 나열해보자면...

첫째, 이곳은 기존 지형들을 활용한 놀이터로 스페이스네트, 기타란 통 미끄럼틀, 여럿이 함께 탈 수 있는 대형 평 미끄럼틀 등이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고 놀이기구 곳곳에 햇빛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건 자연 친화적이란 것!!

놀이터가 자연지형을 이용했다면 그 옆으로는 얇은 계곡이 있어 물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꼬물꼬물 올챙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생태교육의 장입니다. 호수 공원에서는 가끔 바위 위에 올라앉은 자라를 볼 수 있고 잉어도 볼 수 있으며, 여름에는 아름다운 연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사슴 가족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눈 맞춤도 했습니다^^)

놀이터에서 조금 올라가면 유아 숲 체험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나무들이 이름표를 달고 있어 이름을 부르며 자연과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넷째, 성인들의 휴식처, 힐링처로도 그만입니다.

깨끗한 화장실, 푸르른 잔디, 정자, 벤치 등 편의시설이 잘 관리되어져 있고 시원한 산 바람, 새소리, 호수 공원의 분수대 물소리, 계곡물소리 등 마음이 절로 정화되는 숲의 기운을 느끼며 우리는 그 자연 속에서 우쿨렐레를 연주했습니다.

그것은 실내에서는 느끼지 못한 힐링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거리 두기로 답답하기도 하지만 딱딱딱, 내 주변의 새로운 곳을 찾아보고 그곳에서 즐기는 새로운 일상! 용당 업동 호수 공원은 책 한 권 들고 와서도 충분히 즐길만한 곳이었습니다.



순천 문화 공간

생활문화센터 영동 1번지 VLOG

SC 크리에이터 1기 박지민, 변혜민, 송예령, 최소담



예령 안녕하세요 저희는 SC크리에이터 1기 풋고추입니다.



(TV에서만 보던 각종 녹음기기가 있어서 앨범하나 낼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



(넓은 연습공간 및 탈리복들이 있어요)

인생이모작은 “중년 함께 배움학교”에서~



인생 이모작 중년 함께 배움학교를 아시나요?

인생이모작을 꿈꾸는 50세이상~64세까지 1인 1강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부터는 나도 함께 보며 천천히 걸어 봐야겠습니다.

중년 함께 배움 학교란?

신중년의 경험으로 획득한 노하우를 다양한 분야의 동년배 대상 강의를 통해 함께 배우는 학교인데 50+세대의 소규모 학습 과정 참여 및 배움 네트워크를 통한 능동적이고 활력 있는 제2의 인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쁘고 편안하게 꾸며 놓았더라구요.

차도 마실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편안하게 소모임도 할 수 있는 교류와 소통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구도심 삼성빌딩 7층에 마련되어서 정말 좋은데 아직은 신중년층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봐요ㅠ

다섯 강좌를 모집했는데 신청자가 부족한 과목 2개는 폐강되고 즐거운 꽃그림 그리기, 프랑스 자수를 활용한 소품 만들기, 고사성어를 통한 인생 배우기 이 세 과목만 강의 진행을 하였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휴강 중이구요 ㅠㅠ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의 설문 조사 결과 신중장년(50세~64세)의 생활 복지를 향상 시킬수 있는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ㅎㅎ

여튼 코로나가 빨리 빨리 물러가길 빌어야겠지요? 인생 이모작은 중년 함께 배움 학교에서 만나게요 안녕~~~

SC 크리에이터 1기 반선순

한국가곡예술마을 속 한국가곡기념관

순천에 한국가곡기념관이 있어요.

저도 20년 이상 살면서 알지 못했는데, 우연히 알게 되어 19년 6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순천시 문화예술행사의 일환으로 김고운 피아노 독주회를 보러 찾아갔어요.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시골 좁은 길이라 혼자 갔으면 되돌아 왔을거예요.

비가 억수 같이 내리는 데다 날도 어두워 그만 돌아가자는 말이 그냥 나오더라구요.

산꼭대기쯤에 넓적하게 한국가곡기념관이 정말 있더라구요!

황토로 멋지게 자연 친화적으로 지어졌구요, 야외 공연장도 있구요.

한국가곡기념관이라 해서 저는 공공건물인줄 알았는데, 장은훈 관장님의 사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더라구요.

지으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말씀 중에 우리가 이만큼 해 놓으면 후세가 또 좀 발전시키지 않겠냐는 말씀이 잊혀지지 않네요.

그 날 김고운님의 피아노 독주는 돈을 주고도 못 볼 최고 중에 최고의 연주였고 장소 또한 최고였지요.

힘들게 길 찾아가간 보람이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세계 유명 음악가들을 모신 클래식 연주회를 무료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한국가곡예술마을 역시 생태마을이던데 언제 또 하면 가고 싶어요.

좁은 길이라 생태공원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면 청정 시골 마을을 느낄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랑 같이 가면 더 좋을듯해요.

~~감사합니다~~

한국가곡예술마을 한국가곡기념관 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읍 고산도목길 61-37

SC 크리에이터 1기 김분식



연경 인문문화예술연구소



연경 인문문화예술연구소가 이사를 했어요~~~

문화의 거리, 두드림 센터에서 한 블록 골목 안에 위치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순천시청 옆으로 이사했습니다^

연구소를 꾸려가시는 분은 석연경 소장님.
(소장님의 성향에서 연구소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본디 고향은 경상도이지만 순천의 매력에 푹 빠져 순천에서 터전을 일구어가고 계십니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시고 취미로 틈틈이 하시는 그림도 수준급 이신데다
자신의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의 인문학 저변을 확대하시겠다는
원대한 꿈으로 세우신 게 바로 연경 인문문화예술연구소예요.

현재 옮긴 곳의 연구소는 총 2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에는 인문학 특강을 할 수 있는 공간, 갤러리, 작은 서점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은 석연경 소장님의 개인 작업실로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 인문학 특강은 연경 연구소의 존재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인데요.

'오래된 미래 고전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평소 뵙기 힘든 명사분들을 초청하여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명사 초청 강의로 저명한 출판사인 한길사의 대표 김연호 선생님께서 친히 연경 연구소를 방문하셔서
서점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역할과 세계 서점 기행을 통해 느끼신 점 등을 탁월한 강의로 풀어내신 바 있습니다.

대학 출강, 영감을 얻기 위한 여행 등으로 연구소를 비우실 때도 있기때문에
연구소 방문을 원하신다면 미리 소장님께 연락 드리고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향긋한 꽃차와 문화에 푹 젖을 수 있는 여유로움도 덩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순천의 인문학 사랑방, 연경 인문문화예술연구소에 방문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SC 크리에이터 1기 이복덕

골목책방 서성이다

문화의 거리 순천 청소년수련관 바로 맞은편에 골목책방 서성이다가 위치해 있어요.

원래 순천 향교 앞 골목에 정말 말 그대로 골목책방으로 시작했는데요.

좀 더 많은 분들과 교류하고 싶어 문화의 거리 대로변으로 옮겼답니다.

곰곰이 생각해볼 만한 주제의 책을 가지고 독서모임도 이루어지고요.

국제 공용어를 표방하는 에스페란토어를 공부하는 모임도 열고요.

작가 분을 초청해 강연회, 북콘서트도 열린답니다.

물론 이 모든 행사는 철저한 방역 하에 이루어지고요.

밀집되지 않기 위해 요즘은 작가 초청 강연회도 15명 정원으로 딱 한정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사한 공간에 아늑한 지하 벅커도 있고 책방 뒤뜰에 야외 카페 같은 공간도 있어서 사람들의 호응이 참 좋답니다.

방황하는 영혼이 아름답다는 마음 하에 서성이는 마음들이 쉬어가는 문화 사랑방의 역할을 하려는 책방 주인분의 마음이 참 아름다운 이곳.

이곳의 책방 주인분께서 밝은 미소로 내려주시는 향긋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독서 한 조각' 어떠세요?

골목책방 서성이다 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길 15 골목책방서성이다

SC 크리에이터 1기 이복덕



공유공간 너머 : 안심하는 관계, 안심하는 순천을 꿈꾸다!



저전동 주택가에 벽돌 시멘트로 지은 양옥 건물에 공유공간 너머라는 나무로 된 조그만 간판이 있습니다. 파란색 대문 안에 24평짜리 평범한 공간은 공유공간 너머를 처음 시작한 임경환 씨(42세)가 대학원 논문을 쓰기 위해 공부할 방을 얻었으나 방 두 개와 거실은 사용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쓰라고 내주면서 시작되었는데. 그는 연찬과 일본에즈원커뮤니티를 경험하고부터 안심하는 관계, 안심하는 사회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 소망으로 너머에 모두의 서랍, 모두의 냉장고, 모두의 서재를 만들었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실험을 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1. 모두의 서랍

모두의 서랍에 먼저 물건을 넣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모였고. 본인에게는 필요 없어 자리만 차지하는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횡재가 되어 귀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물건을 내놓은 사람에게는 훌륭한 기쁨이 있고, 그릇이나 옷, 신발, 문구류가 나오거나 아이패드나 나올 때도 있었는데.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을 가져다 모두의 서랍에 넣을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물건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기도 하고.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 모물 상사처럼 원하는 물건을 얻을 수 있었던 모두의 서랍은 한 달에 한 번 장터를 열어 지금은 '필요경매' 라는 이름으로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모두의 냉장고

모두의 냉장고는 3년 넘도록 신비한 마법을 부리고 있다고 하네요.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닌데 먹을거리를 넣어둔 사람이 있었고 그 음식을 대가 없이 먹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분은 너머를 특별한 공간으로 느낀 건 3년 전 어느 날 아무 기여한 바 없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으면서부터 라고 합니다. 많은 일로 힘든 시절. 너머에서 쉬고 있는데 배가 고파 모두의 냉장고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치, 찜, 된장, 과일 등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넣어둔 음식을 먹으며 그 사람의 마음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고 하네요. 그날 이후, 힘든 마음이 견딜 만 해졌고. 이곳에 음식을 넣어 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때부터 공유공간 너머는 '사랑을 만들어 내는' 공간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3. 모두의 돈통

공유공간 너머가 1년이 되는 날 임경환 씨는 돌을 하나씩 가져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돌에 마음을 새겨서 소개하며 생일잔치를 하고, 너머는 순천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게스트하우스나 순천에 살고 싶은 이들의 임시거처로 자주 이용되었는데, 돈을 안 내고 공간을 쓰는 것이 어색한 사람들이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곳을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그냥 누군가가 필요할 때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돈 통을 만들어서, 내고 싶은 사람이 내자."고 해서 쓰레기통을 개조해 만들었습니다. 이 돈 통이 만들어진지 2년쯤 되는 날 돈 통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까 하는 사건이 생겼다고 하네요. 10만원이 넘게 모아진 돈을 청소년 한 명이 "옷을 사고 싶다."며 가져간 것이고 그 장면을 본 누군가는 '저건 아닌데?' 싶어 불편한 마음이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에게 그 돈은 인생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분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지금까지 돈통은 유지되고 오고 가는 말들 속에 의미를 찾고 이해하며 지금도 돈통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그 마음은 또 다른 이에게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오는 것이 아닐까 너머에서 흐르는 마음, 제안되는 일이 실행되는 과정을 보며 "어쩌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놀랍다"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스스럼없이 호의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본 사람들은 '나도 저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해 재미있고 행복하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을에서 이런 공간을 시도하고 싶은 꿈이 생긴다고 합니다. 안심하는 관계,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한 사람의 꿈은 이제 너머를 드나드는 모두의 꿈이 되어간다고 하니 아마도 그것은 공동체의 삶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느끼고 나누는 행복한 에너지 때문이 아닐까? (도움·박경숙, 글·사진·밴드 발체)



순천문화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등록 대행 서비스

SC 크리에이터 1기 이정석, 이정선, 박지민, 변혜민



★예술활동증명이란 공식적으로 자신이 "예술가"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대처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등록 대행 서비스란!!?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예술인 대상으로 순천문화재단 사무실에서 예술활동증명 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는 사업입니다!★

☎전화상담 상시운영 (근무시간 이내)

☎06-1800(화)~11(토) 11:30~13:00

📅연중상시 31

★사전 문의 및 예약 필수★



만남강좌 - 생활수묵화 리뷰

SC 크리에이터 1기 최희우

- 순천문화재단 만남강좌 리뷰 -

생활수묵화




순천문화재단 만남강좌란?

만남강좌는 순천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으로, 삶에 활력을 주고 감수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강좌는 지역예술강사 모집에 따라 다르다고해요!

 수묵화	 서예	 전통춤
 전통악기	 전통연극	 전통인형극
 전통공예	 전통놀이	 전통음식
 전통스포츠	 전통축제	 전통공예



- 순천문화재단 만남강좌 리뷰 -

생활수묵화(천아트) 수업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강사님의 조언과 칭찬을 통해 수강생분들은 더욱 열정을 가지고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직접 그려서 완성한 파우치 정말 귀엽고 매력있죠?



- 순천문화재단 만남강좌 리뷰 -

생활수묵화(천아트) 수업

본인만의 개성을 담아낼 수 있어서 더 특별한 수업이에요!




- 순천문화재단 만남강좌 리뷰 -

생활수묵화(천아트) 수업

본 수업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촬영일자: 2020.8.11)

수업 소감:
자신만의 감성을 담은 생활수묵화 수업을 통해 예술감수성을 높일 수 있었고 다른 만남강좌도 참여하면 좋겠네요!




SC 크리에이터 1기



최희우
phewiry@gmail.com
이메일: phewiry@gmail.com
이디디 주소: gongju.com



아트팩토리 예술공작소 자이언트 페이퍼 플라워 리뷰



여기는 순천시 중앙동에 위치한 영동1번지입니다.
순천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문화 프로그램은 예술치료, 아트팩토리 예술공작소, 꼬마 예술가 놀이터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금손으로 만들어주는 아트팩토리 예술공작소의 자이언트 페이퍼 플라워 수업을 참관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수요일마다 두 번 수업이 있는데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합니다.
김미경의 강사님의 수업은 자이언트 플라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아주 친절한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완전 초보인 저도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19 영향인가요. 소수로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강사님의 개인별 맞춤 지도가 이뤄집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많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만드는 남자도 많다고 하네요.

꽃의 재료인 이 종이는 이탈리아에서 만든 주름지라고 합니다.
주름지는 생화에 더 비슷한 느낌으로 표현하고 꽃이 작을수록 디테일함이 더 강조된다고 하네요. 어렵지는 않는데 섬세한 과정이 필요하네요.
노하우가 쌓이면 독창적이고 자신만의 다양한 플라워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드디어 저도 완성이 되어갑니다. 다들 열심히 하죠? 정말 집중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수업인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단계로 꽃받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미꽃 모양이 보이시나요? 1시간 만에 완성. 저는 대만족입니다.

이제 큰 꽃을 만들어 볼거예요. 처음 배우는데 서툴러도 이상할 것은 없죠.
힘쓰는 정도에 따라 꽃모양도 제각각이라 더 재미있는 공예인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봐서 그런지 이제 척척 손이 갑니다.
벌써 금손이 된 느낌이에요.

인터뷰 영상도 함께 보고 싶다면 유튜브를 확인해주세요.
유튜브 주소 : <https://youtu.be/nJX32t2ttO8>

SC 크리에이터 1기 박종영

순천형 예술로 사업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예술사업

SC 크리에이터 1기 김양남

예술로 사업이란?

기업과 예술인들이 협업하여 부족했던 부분들을 창안 창작하여
요즘같이 힘든 현실을 이겨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순천문화재단의 순천형 예술로 사업입니다.

총 2팀의 예술가들이 선정되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활발한 활동은 못하지만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모두가 행복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빙아트]

무빙아트 팀은 문화의 거리 가로수 앞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였습니다.

남도민요 판소리, 팽퍼래,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로 시민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시행하면서 지나가는 시민들과 상주하는 상인들에게 흥을 돋구어
즐거움과 힘을 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우울했던 상인들에게 힘을 돋구자는 취지로 진행하였습니다.



[클워드]

클워드 팀은 별량면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협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별량면은 다른 곳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특수한 형태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고 외신에 보도될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내년에 면사무소 앞에 커다란 전광판을 설치하여 면을 홍보하는 영상을 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클워드 팀은 그 홍보자료 영상에 음악을 넣고 편집하여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여 볼 수 있도록 쿼알코드를 여기저기에 붙이기로 하겠다고 합니다.

팀원 개별로 영상에 넣을 음악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2분 이내의 짧은 홍보 영상이 완성되면 쿼알코드를 만들어 별량 곳곳에 부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순천형 예술 생태계를 작업하고 있는 두 팀!

앞으로의 두 팀이 만들어가는 순천 예술 사업 모두모두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아고라 순천 미리 콘서트를 소개합니다

지난 8월 19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순천만 생태교육원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설립한 복합교육
문화시설입니다. 순천만생태교육원 공연장에서 2020 아고라 순천
미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비대면 무관중 콘서트 행사로 순천문화재단에서 8월 16
일을 시작으로 9월 2일까지 3차에 걸쳐 총 11일간 순천만생태문화
교육원 공연장에서 무관중 콘서트 시즌2 '아고라 순천
미리콘서트'를 개최 하는데 저는 순천문화재단 서포터즈 자격으로 1차 마지막 날인 19일 1시 공연을 취재차(관람) 다녀 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공연이 어려운 상황에서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아고라 순천 전문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순천문화재단에서 기획한
행사인데요. 오디션을 통해 2020 아고라 순천에 선정된 예술팀 중 전문예술팀 63팀, 생활예술팀 67팀 총 482명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면서 미리 들려 드린다는 컨셉으로 준비된 '미리콘서트'는 오프라인 공연 재개가 기약 없는 상황에서 아고라 순천 전반기 공연을 하나의
기획공연으로 묶어 각 공연팀별로 1시간의 기획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획공연은 아고라 순천 전문예술팀이 직접 기획서를 작성해 전문예술팀과 생활예술팀의 콜라보 공연을 통해 다채로운 예술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연은 영상으로 편집해 유튜브 순천문화재단 채널을 통해 9월 중순부터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SC 크리에이터 1기 남유형



2020 아고라 순천, 무관중 콘서트 시즌2 미리 콘서트를 관람하다!



26회차 굿패 터울림 편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는 2020 아고라 순천 미리 콘서트를 관람기를 들고 왔습니다!
무관중 콘서트이지만 순천문화재단의 SC크리에이터 자격으로 취재 차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배경은 무엇인가요?

-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다양한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아고라 전문예술인 지원
- 아고라 전문예술팀과 생활예술팀에 공연기회 제공
- 지난 8월 미리콘서트 진행 중 관내 코로나-19 2단계 격상으로 공연팀의 안전과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단되었던 무관중 콘서트 재개

개최일시는 언제인가요? 20. 10. 22. ~ 10. 24. / 10. 26. ~ 10. 29. (총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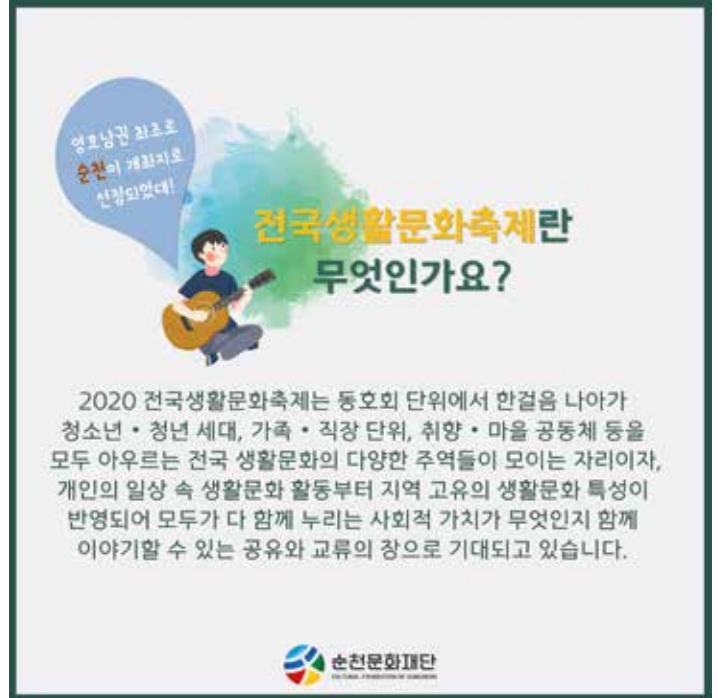
참여 인원은 몇명인가요? 아고라순천에 선정된 전문예술팀 39팀/생활예술팀 46팀
공연장소는 어디인가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공연장/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미리 리허설을 하고 계시네요. 다들 정말 열심히 준비하게 사진으로도 느껴지죠?
촬영팀도 공연내용을 멋있게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재미있는 콘서트가 끝나고 MC와 함께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런 공연 관람하기 힘든데 오랜만에 신명나는 공연을 본 것 같습니다.

굿!!

SC 크리에이터 1기 정성태

순천,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지 선정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는 동호회 단위에서 한걸음 나아가 청소년·청년 세대, 가족·직장 단위, 취향·마을 공동체 등을 모두 아우르는 전국 생활문화의 다양한 주역들이 모이는 자리이자, 개인의 일상 속 생활문화 활동부터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 특성이 반영되어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유와 교류의 장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국생활문화축제 KEY POINT!

-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순천만 갈대밭 등 수려한 생태 자연을 보유한 생태 문화!
- 관광객 모두가 참여하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꾸며지는 개막식!
- 순천지역 600여 개 생활문화 동호인들을 주축으로 다양한 작품과 영상물,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는 풍요로운 세부 행사!

SC 크리에이터 1기 최희우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개막식 리뷰



#전국생활문화축제 #2020전국생활문화축제 #순천축제 #2020순천축제 #순천문화재단 #순천만국가정원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장소 : 순천만국가정원일원

기간 : 2020년 10월 8일 ~ 10월 18일

제목 : 함께 만드는 열린 마당

주제 : 문화가 있는 삶, 문화로 바뀌는 일상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가 우리 지역 순천에서 열렸답니다.

순천만 국가 정원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공연과 체험행사 위주였던 기존 축제와 달리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언택트 방식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언택트로 진행됐지만 티브이로 보는 것처럼 생생한 라이브 방송이 얼마나 실감 나게 하던지요. 두 사회자님 말씀을 깔끔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올해 코로나로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던 대구광역시가 눈에 띄네요. 전국 17개 지역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전국 시의원님들께서 줌으로 축제를 축하하는 카드 섹션을 보여주셨습니다. 각 지역 시의원님들의 깜짝 쇼에 축제에 품격이 더해졌지요. 순천시의 대표 흑두루미를 표현한 줌으로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각 지역의 솜씨들을 뽐내는 시간이 언택트로 진행되었습니다.

인천 부평구 어르신들의 포크댄스는 흥겨운 음악과 함께 어찌 그리 박자도 잘 맞추어서 즐겁게 추던지요. 짹짹 정말 정말 잘하셨어요!! 박수가 절로 나왔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지요.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상과 동작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엽고 예뻐던지요~

#순천시의 '아름다운 강산' 연주는 정말 흥겨워서 나도 모르게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지역 하모니카 앙상블 연주도 여러 지역의 준비한 무대를 보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무대가 정말 감동이었고 각 지역의 문화센터를 통해 젊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이웃의 친근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때론 부족한 모습으로 때론 멋진 모습으로 각각의 멋진 무대를 뒤로하고 아쉬운 막을 내렸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관람한 특별한 개막식이었습니다.

SC 크리에이터 1기 김지은, 박정은, 조요순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생태문화공감전 리뷰

시각 예술, 무지 에코백웍퍼는 미술, 사진, 영상을 결합한 유니크한 디자인제작 프로젝트가 눈에 띄이는 전시였습니다.

생태문화 공감 전.

개막식날은 봄빛것 같아서 13일날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참 고운하늘빛을 닮은 쪽빛의 바다를 표현한 거대한 천이 휘날리는 풍경이 장관이었습니다.

전국적인 참여자들의 정성어린 작품과 순천의 상징적인 순천만과 갯벌 그리고 낙안읍성, 송광사, 흑두루미 등등 다양한 소재와 어울어진 모습이 고운 하늘빛 만큼 청정 하였습니다.

하루종일 감상해도 실증나지않은 자연의 모습들이 국가정원 동문과 잘 어울려져. 멋진 전시회장이었습니다.

SC 크리에이터 1기 문동훈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생태문화공감전 리뷰

이 프로그램은 순천의 기획자들이 직접 구상하고 지역아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자들의 도전과 열정이 담긴 기획을 통해 신선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 합니다.

문학,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될 이벤트 'N행시 이벤트'로 추후 우수작품들을 잡지에 게재하는 프로젝트도 마련되어져 있다 하네요. 반려동물의 장난감 등을 기부하는 캠페인도 인상적일 듯 하네요.

청명한 가을 하늘아래 뜻깊은 전시회였습니다.

글보다 사진이 더 보기 좋을 듯 해서 많은 사진 첨부해 보았어요.

전국적으로 작품 제작하여 한자리에 전시해 놓은 풍경이 인상적이고 무엇보다도 순천의 빨배 형상에 순천의 아름다운 순천만과 명소들이 그림으로 표현 되어진 작품을 보고 많이 흐뭇 하였어요 ♥ 오래동안 마음속에 여운이 남았어요.

아름다운 순천이에요.

SC 크리에이터 1기 오영옥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마스터클래스 Zumba dance 리뷰

손 머리위로 하나 둘~

저는 전국생활문화축제 프로그램 중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인 마스터클래스 줌바댄스에 참여해보았습니다~
코로나시대로 달라진 축제 풍경들이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Zumba dance 를 ZOOM 화상 프로그램으로 같이 하다보니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상당한 칼로리 소모가 되는 듯 합니다.

초반전 워밍업으로 전신을 풀어주고
쉬는 시간 없이 코어 운동과 하체 근력 운동을 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하고있다는걸 모르게 재미있고 쉽고 흥미로운 음악에 몸을 맡겨
모든이와 소통을 하는 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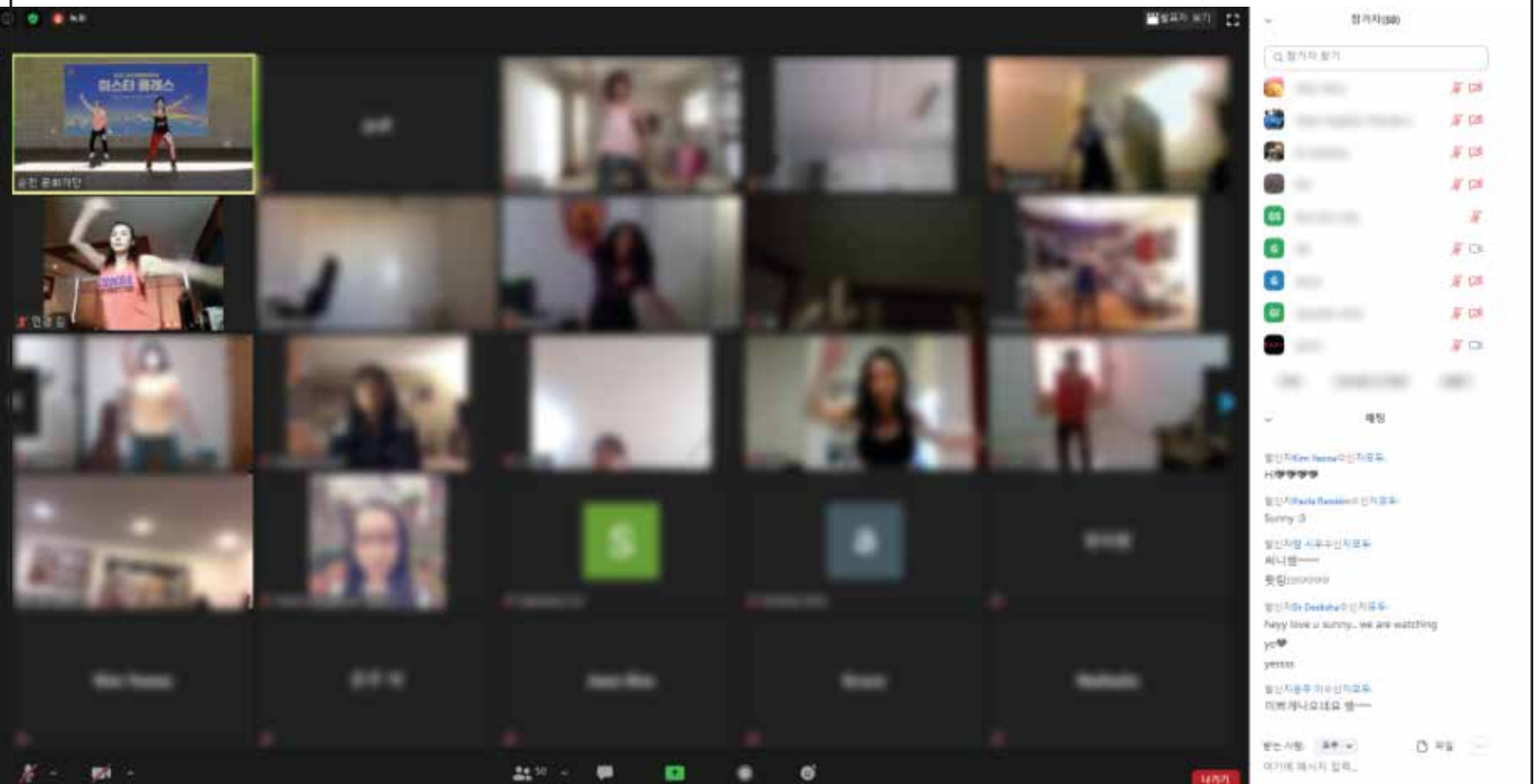
온라인상이지만 다채로운 국가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동시에 프로그램을 듣고 즐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비대면 시대를 잘 이겨나가 이 길을 편승할 것인가
고민이 되기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

전국생활문화축제 마스터클래스 - 줌바댄스 편 체험 후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C 크리에이터 1기 이상남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소일담꾸러미 리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중계되고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았잖아요. 집 밖으로 나가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서 일단 집에서 사소하게 즐길 수 있는 소일담 꾸러미들을 잘 챙겨봤어요.

순천지역 참가자들은 순천 미니 정원 꾸러미를 가져가서 꾸밈한 정원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경남 지역은 김수로왕 액션토이와 김마리아 액션토이, 서울지역은 USB화분만들기, 냅킨액자 만들기, 강원지역은 서책 만들기 경북지역은 마스크 만들기 울산지역은 한글 대나무 부채 만들기, 제주 지역은 갈천공이인형 만들기, 양말목동백꽃 만들기, 전북지역은 백제왕도 매직큐브 만들기, 충북지역은 핸드폰 거치대 만들기 ~~~~

세상에나 너무 많네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ㅎㅎㅎㅎ 쉬운 것들만 골라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순천사람이라서 순천 미니정원 만들기를 가장 먼저 해봤어요



기대 만땅 상자를 열었어요. 그런데 소일담 꾸러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ㅠ.ㅠ 뭔가 많으면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막상 해보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10대 학생들과 함께 재미있게 미니정원을 만들어서 수확의 기쁨도 만끽해 보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설명서대로 따라 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꾸미기를 해 봤어요. 틸란드시아는 항상 키우고 싶었던 식물이었거든요. 소일담 꾸러미에 있는 틸란드시아를 잘 키워서 엄청나게 길게 자란 틸란드시아를 만들어 볼 생각이랍니다. 어떻게 해야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배치해야 무씨와 보리씨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 애기꽃이 모락모락 피워 올랐어요.

흰 돌로 물길도 만들고 새 동지나 솓대, 인형도 적절하게 배치를 했어요. 모양이 많이 어설플 보이지만 그런 것이 매력이라고 서로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만들면서 너무 많이 웃었더니 배가 아프더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 마지막으로 무씨와 보리씨를 심어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깊이였어요. 어떻게 심어야 무사히 보리씨와 무씨가 자랄 수 있을지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용감하다고 깊이도 모르고 마구 심었어요.



대신이 잘 자라 달라는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라도 열심히 해줘야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았어요.

물을 정성스럽게 부어줬어요. 방수포 덕분에 물이 밑으로 다 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2층 입구 앞 미니 정원을 두었는데 지나갈 때마다 잘 자라 달라고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보리씨와 무씨가 자라 있더라고요.

보이시나요. 학생들과 함께 박수를 쳤어요. 너무 잘 자라서 고맙다는 인사도 잊지 않고 해줬답니다.
너무 사랑스럽다는 인사도 해줬어요. ㅋㅋㅋㅋㅋ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보리씨와 무씨가 너무 잘 자라서 한 번 잘라줬어요.

야채 비빔밥을 해 먹는다고 미니 정원을 만든 학생이 소중하게 안고 갔답니다.

SC 크리에이터 1기 이성남

순천문화재단, 출범 1년의 발자취

순천문화재단, 출범 1년의 발자취
(2020년 7월 기준)

순천시 문화예술의 주춧돌이 될 순천문화재단이
2019년 9월에 출범하여 곧 1주년을 맞이합니다.
(벌써 1년 이라니 !!)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1년동안 순천문화재단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능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문화 예술인이 참여하며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소식을 접하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쳐서 안타까워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활동을 더욱 더 널리 홍보하기 위해 순천문화재단 청년SC크리에이터와 중장년SC크리에이터가 선발되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순천 곳곳을 누비며 순천문화 소식과 문화재단의 활동을 알려준다고 하니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두둥 ~)

출범한 해인 2019년 11월에는 제1회 문화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 순천문화재단의 역할과 상생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12월에는 순천문화재단 출범기념 송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천이야기' 주제로 열렸습니다.
2020년 2월에는 예술단체 대상 e-나라 도움 교육 실시하고 예술활동증명 등록 대행을 시작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순천 등록비율이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예술인들의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기획전문가 지원을 했구요.
3월에는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고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는 제1회 순천생활문화페스티벌 무관중 콘서트를 개최되었습니다.
아고라 순천을 순천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전문성이 강화되었으며 향균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공연팀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6월부터 만날 강좌 등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예술공작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어린이 대상 꼬마 예술가 놀이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청년SC크리에이터를 선발해서 SNS 홍보 활동하고 있고, 올해 6월부터는 중장년SC크리에이터를 선발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순천시 예술인 실태조사, 생활문화 동호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보니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도 기대만땅하시고 순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자주 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

SC 크리에이터 1기 강관규



SC 크리에이터 1기 활동소감

지난 1년이란 시간 동안 서포터즈라는 활동을 해본 결과 순천에 거주 중인 나도 모르는 순천의 자랑거리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 이 활동을 하며 정원박람회, 순천만, 드라마세트장, 문화의거리 많은 곳을 갔다. 아름다운 광경도 보고 어울리며 알아가는 문화가 참 좋다고 생각했다. 비록 1기여서 서툴기는 하였는데 값진 경험이고 많은 정보를 새롭게 배운 것 같아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2020년 초에 시작해 벌써 마지막을 달려간다. 중간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활동과 많은 문화를 느끼지는 못하였는데 순천이라는 이 아름다운 곳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활동을 계속해나갔다. 진로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내가 못하던 편집과 카메라 사용법 등등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어 이번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할 것 항상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한데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내 생각을 주장하고 순천을 알리는 이 활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비록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실수도 하고 모르는 것도 많았지만 항상 옆에서 도와주신 문화재단 선생님들, 담당자분 호기심 많고 궁금한 것이 많은 저희 많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활동은 마지막이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서포터즈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항상 마음 깊숙이 추억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순천시 문화재단 서포터즈 신청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SC 크리에이터 1기 안정환, 홍유승

나는 순천 문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큰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포터즈에 지원하게 되었다. 7개월 동안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을 카드 뉴스로 제작할 때 마음처럼 잘 표현되지 않아 답답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힘들었지만, 직접 찍은 사진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행복하고 재미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해서 취재나 인터뷰 등 적극적인 활동을 못한 부분에서 오는 아쉬운 마음이 매우 크고, 하루빨리 종식되어 평안한 나날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나의 첫 서포터즈 활동을 순천문화재단에서, 그리고 1기로 시작했다는 점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지난 활동들을 통해 나 자신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꾸준히 순천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알릴 것이다.

SC 크리에이터 1기 최희우

서포터즈 1기 활동을 하면서 내가 살던 지역이지만 몰랐던 순천 활동이나 시민들을 위해 주어지는 혜택들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과 새로운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다. 드라마 세트장도 평소에도 별로 가보지 않았던 곳인데, 이 기회로 가서 그런 곳도 알게 되어 좋았다. 사실 순천에서 서포터즈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1기를 우리가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 이 서포터즈를 진행하려 한 생각은 정말 참신한 것 같다. 크리에이터로서 영상을 제작도 해보고 순천을 파헤쳐보고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다. 서포터즈 1기가 끝나고 2기가 시작되면 많은 응원을 해주고 싶다. 순천을 잘 알려주길 바란다. 순천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지 않은데, 이제 순천의 매력을 다른 지역 사람들도 알게 되면 좋겠다.

SC 크리에이터 1기 박지민, 변혜민, 송예령, 최소망

지난겨울, 처음으로 서포터즈에 지원을 하여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활동을 했다.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아직까지도 무섭고 떨리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었다. 첫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모든 서포터즈 인원과 함께 순천 곳곳을 버스를 타고 돌아다녔다. 평소에 가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 갔던 곳을 직접 다녀오고 나서 보고 느낀 점을 블로그에 기록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열심히 작성한 후 나온 결과물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이번 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활동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서 아쉬웠는데, 내년에 상황이 좋아져서 직접 경험해보는 활동을 한다면 2기 서포터즈들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활 4년 동안 외부 활동을 순천문화재단 서포터즈로 처음 경험해봤는데, 걱정한 만큼 어렵지 않아서 팀원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며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번 활동 덕분에 다가오는 2021년에는 취업을 위한 활동도 지원해보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으며, 조금 더 성장한 24세의 나의 모습도 기대하고 있다. 순천문화재단 서포터즈 1기 활동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SC 크리에이터 1기 김기은

서포터즈1기(중장년)을 활동하면서 블로그 작성법, 영상 제작 키네마스터 활용으로 업로드 등 많은 기초지식을 배우면서 아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업도 개강 휴강 번갈아가면서 끝까지 수업을 마치면서 중장년으로도 배우며 활용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으로 아고라, 캠핑, 정원 여러 곳을 탐방하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아고라 활동을 취재하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다는게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정원을 취재하면서 순천만 국가정원의 사계의 변화를 보면서 자연의 이치를 맛 보았고요, 몸과 마음을 힐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들이 코로나19로 연기되고 다시 열리기를 반복하면서 여러 사정으로 참여를 못했지만 책임감으로 여러번 방문하고 먼저 답사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경험을 했구요. 서포터즈1기(중장년)의 6개월의 대장정을 마치면서 아쉬움도 많습니다. 한편 너무 짧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활동 기간을 1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여러가지 여건상 모임 자체가 되지 않았지만 만약 서포터즈1기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사례분석을 한다면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것입니다. 같이 동행하면서 견학 겸 답사를 하면서 의견을 취합하는 시간이 없어서 무척 아쉬웠습니다. 서포터즈1기(중장년) 활동을 마치면서 많은 아쉬움과 한편으로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저에게는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순천문화재단에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서포터즈1기(중장년) 동기분들 반가웠고요, 순천문화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나요!!

SC 크리에이터 1기 정성태

순천에서 자라서 학교와 사회생활의 대부분도 순천에서 하였습니다. 중장년 서포터즈 1기에 지원하면서 순천의 고유문화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배우고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다보니 기대한 것만큼 성과도 노력도 미흡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시작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블로그와 동영상 교육은 유익하였습니다. 작품을 만들어 서로가 공유하여 보완하여 피드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순천문화재단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SC 크리에이터 1기 최희우

코로나 19로 답답한 요즘, 죽도봉 공원에 올라 상쾌한 공기를 맡으며 기분전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포터즈 1기(중장년) 활동을 통해 컴퓨터와 거리가 멀었던 제가 블로그 작성법, 키네마스터 활용 등을 배우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휴강도 했지만, 끝까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다는 점이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답답한 시국에 이 활동을 계기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바람도 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점을 배우고 많은 생각,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SC 크리에이터 1기 김지은

Connect to Suncheon

발행일 : 2021년 3월 XX일

작성 자 : 서포터즈 1기 (김기은, 김도현, 박종현, 박지민, 변혜민, 송예령, 안정환, 이정석, 이정선, 주은총, 최소망, 최희우, 한광혁, 홍유승, 강란규, 김민경, 김분식, 김양남, 김지은, 남유행, 문동훈, 박애숙, 박정은, 박종영, 반선순, 손옥희, 오영옥, 이복덕, 이성남, 이현영, 정성태, 조요순, 최하영, 황영옥)

도움 주신 기관 : 순천시 관광과,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

편집·디자인 : ㈜투니스

발행처 : (재)순천문화재단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95

홈페이지 : www.cfsc.or.kr

2020 순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서포터즈 SC CREATOR 1기 결과 자료집

Connect to Suncheon



순천문화재단
CULTURAL FOUNDATION OF SUNCHEON